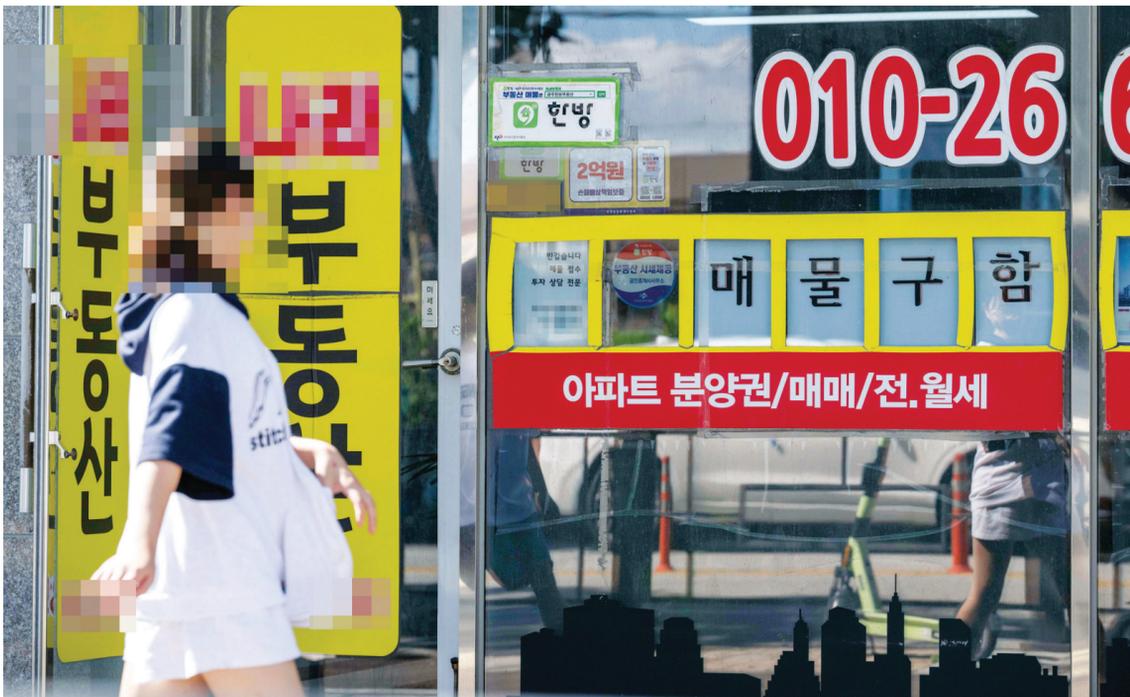


## 광주 부동산 침체 '거래 멈춤' 공인중개업자 휴·폐업 '속출'



소비 침체로 상가와 토지 거래가 감소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인 공인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유리창에 시선이 매물을 구하는 글로 채워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아파트·상가·토지·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급감 휴·폐업자 신규 개업자보다 많아 '투잡'으로 생계 이어

지역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공인중개업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상가, 토지, 점포,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거래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 급등 속에 한 번 거래에 목돈을 벌었으나 이제는 폐업, 휴업이 속출하는 신세가 됐다. 거래 '빙하기'로 개점 휴업한 중개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급감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한 실정이다.

지난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휴·폐업을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6월 말 기준으로 47명,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6월 휴·폐업자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 휴·폐업자(261명)도 전년(247명)보다 5.7% 늘어났는데, 지난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반면, 올 상반기 신규 개업자(237명)는 휴·폐업자의 52%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소비 침체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고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상가를 분양받

거나 임대해 창업했지만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장사도 안돼 결국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면 서 상가 거래가 푹 끊겼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2분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5%, 소규모 상가 9.2%로 각각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토지도 비슷하다. 수익·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보니 중개사들이 중개료를 받아줄 수 있는 토지 거래가 급감했다.

당장, 올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한 광주지역 전체 토지 거래량은 1만 8239필지 중 최근 5년(2019-2023년) 상반기 평균 거래량인 2만 8905필지보다 36.9%나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1만 9933필지)와 비교해도 거래량이 줄었다.

광주의 순수 토지거래량도 올 상반기 2426필지로 최근 5년 평균 거래량 5003필지의 48.5%에 불과했으며, 작년 하반기(3198 필지)보다 24.1% 감소했다. 순수 토지거래의 경우 농지 거래가 대부분인데, 최근 투기 예방 등을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이 엄격해지면서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

중개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보니 밤엔 대리운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투잡'에 뛰어들어 '사장님'들도 많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낮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마저도 문을 잠가 놓고 손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나가거나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해결하는 편"이라며 "사무실 문만 열려도 최소 운영비가 200만원엔 드는데 밤에 대리운전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과거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중 하나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과잉 경쟁 등으로 시험 응시자도 줄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응시생은 9015명(2020년)→9660명(2021년)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 8435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5860명으로 급감했다.

모종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회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높은 금리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아파트 전세, 매매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도 높은 상가 공실률과 까다로워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 때문에 토지 매매가 급감한 것도 부동산중개업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대병원 0명·조선대병원 1명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사직 전공의 개원병원에 눈 돌려  
상급병원 의료공백 계속될 듯

한명도 없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양 병원은 전체 417명에 대한 사직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결원 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양 병원은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 상급병원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보다 개원의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한 전공의는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료현장과 전공의들이 바라는 의료환경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오랫동안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빠르게 사직 후 개원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이미 상당수 전공의들이 피부·미용 쪽의 개원의 쪽을 바라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전공의들이 떠난 광주·전남 의료현장의 공백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국 모든 상급병원에서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거의 전무하다"면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논의해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국립 의대 설립 가시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공모절차 끝나는 대로 정원 배정"  
전남도, 공모 평가 뒤 11월 추천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을 찾아 정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정원 배정을 요청하는 서 의원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부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서 의원에게 박 차관은 "장관께서 이미 수차례 답변한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100% 공감하고 있다"며 "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으로,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서 의원은 "전남도가 전남도민의 수십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하고 있는 공모에 대해서도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한층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현재 의대 공모와 관련해 용역사를 선정할 상태로, 국립대인 순천대와 목포대 응모와 평가를 거쳐 11월께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바이오희화산단 구북구 화순군수 인터뷰 ▶2면
- 파리올림픽 - 임애지 복싱 새 역사 도전 ▶18면
- 팔도 핫플레이스 - 합천 윤석충돌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롬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